

30대 대기업 87%, 협력사 ESG 평가... 패널티 등 영향도

중기중앙회, 협력사 ESG관리현황
패널티 부여 16곳, 인센티브 13곳
협력사 수준미달 부정영향 30%
우수등급 획득시 긍정영향 24%

30대 대기업 가운데 26개사가 협력사들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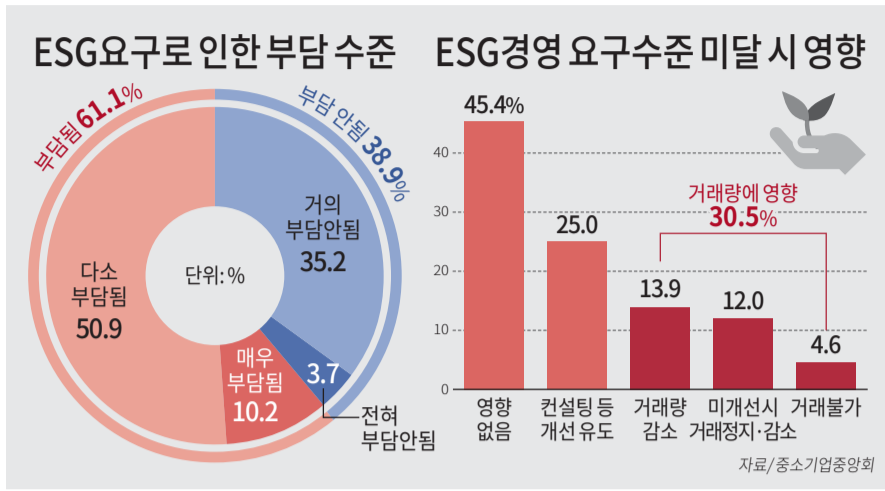
이를 통해 협력사에 주는 일감 수준을 결정하거나 가점(인센티브)·감점(패널티)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특히 대기업들은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할 때 인센티브보다 패널티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항도 많게는 120개 이상으로, 갈수록 더 많은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들의 ESG 대응 역량 확보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협력사 10곳 중 4곳은 대기업으로부터 ESG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시가총액·매출액 상위 대기업 30개사(공기업 3개사 포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과 ESG평가 담당부서 설문, 협력사 108개사 설문을 통해 10일 내놓은 '대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현황'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30대 대기업 중 86.7%인 26곳이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엔 17개사(56.7%), 2020년엔 20개사(66.7%)이던 것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의 공급망 ESG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협력사에 대해 ESG 평가를 하는 26개사 중 18개사(69.2%)가 평가결과를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등의 방식으로 구매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구매정책에 반영하는 18개사 중 패널티를 주는 곳은 16개사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3개사보다 많았다. 또 인

센티브만 주는 곳은 3개사, 패널티만 부여하는 곳은 5개사로 대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 결과를 구매정책시 감점 요인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 중소기업(108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도 ESG 경영요구 수준 미달시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30.5%)이 평가 우수 등급 획득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24.1%)보다 많았다.

'인센티브'는 물량을 늘리거나 우선권을 주고,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것 등을 말한다. '패널티'는 물량 축소, 입찰제한, 거래정지, 시정조치 요구 등을 의미한다.

ESG 평가항목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조사 결과 평가항목은 적게는 30문항부터 많게는 120개 이상으로 환경, 안전, 인권, 보건, 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관련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집계하고 있는 대기업은 14개사(46.7%)였다. 현재 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대기업들도 향후 측정·공개할 계획이어서 협력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출 요구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협력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설문에 응답한 108개 협력사의 경우 58.3%가 거래 대기업의 ESG 평가 수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제조 중견기업 협력사인 한 중소기업 담당자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ESG 평가에 응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ESG 평가내용이 중소기업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관리·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길 원하는 항목으로는 ▲ESG 관련 시설·설비 개선(20.4%) ▲ESG 관련 자금(19.4%) ▲교육(10.2%)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대기업의 ESG 관련 지원이

'없다'고 답한 협력사는 42.6%에 달했고, 가장 필요로하는 '시설·설비·자금 지원'은 4.6%에 불과했다. 관련 교육 지원이 39.8%, 컨설팅이 25%로 비교적 많았다.

대기업들도 협력사의 ESG 능력 제고 등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대기업 ESG 평가 담당자들은 "영세한 협력사들도 많아 관리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고민된다"며 "대부분의 협력사가 아직 ESG 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인력·설비 부족 등 ESG 경영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ESG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업종별 컨설팅·가이드라인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력사들의 ESG 경쟁력 향상은 곧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대기업의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평가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시설·비용지원 등의 지원이 수반돼야만 대·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지원 벤처 87곳 'CES 혁신상' 수상

국내 수상기업 111곳 중 78% 달해
7년 이내 창업기업 91곳 '역대최다'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역대 최다 실적이다. 이 가운데 87개사(78.4%)가 틱스(TIPS), 사업화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CES에선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스마트시티(Smart cities), 로봇공학(Robotics) 등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 609개 제품이 CES 혁신상을 받았다.

이 가운데 국내기업은 134개사(30.9%), 181개(29.7%) 제품이 포함됐다.

특히 국내 수상기업 중 82.8%에 해당하는 111개사가 벤처·창업기업으로 집계됐다.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도 91개사(67.9%)가 수상해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2019년 당시 7개사가 수상하는데 그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여가 적었던 2021년(23개사)을 제외하고는 혁신상 수상 기업이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CES 2023 전시회에서 K-스타트업관 참여기업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중기부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상기업(71개사)이 크게 늘어나 올해는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달성했다.

틱스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민간 운영사가 선두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혁신 분야별로는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와 '소프트웨어(Software)·모바일앱(Mobile Apps)' 등 총 19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중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32개 제품(26.4%)이 수상해 가장 많은 혁신상을

받았다.

이어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분야에서 25개 제품(20.7%)이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헬스케어와 IT·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큰 강세를 보였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K-STARTUP)관'에 참여한 51개사 창업기업 중에서도 1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27.5%)해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달성했다. 수상 기업은 라오나크, 세븐포인트원, 슈퍼노바, 예바, 에어딥, 에이유, 인디제이, 인핸드플러스, 큐링이노스, 디엔에이코퍼레이션, 마스오토, 스마투스코리아, 알고케어, 비컨이다. /김승호 기자

교원스타트원, 역직구 물류대행 사업 확대

쇼피코리아와 맞선

교원스타트원이 쇼피코리아와 손잡고 역직구 물류 대행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10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교원스타트원의 성수물류센터는 쇼피코리아의 신규 배송 서비스 '셀프 드랍 오프 서비스(Self Drop-Off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돼 국내 판매자들의 원활한 해외배송을 돕는다.

셀프 드랍 오프 센터는 판매자가 배

송할 물품을 직접 입고 처리하는 배송 거점이다. 쇼피코리아가 운영하는 '쇼피 물류 서비스(SLS)' 일환으로, 여기에 모아진 물품은 최종 집하지인 물류센터로 이동해 해외 현지 고객들에게 배송한다.

이번 사업 제휴로 교원스타트원은 역직구 물류 대행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쇼피코리아는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입점 판매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31일까지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제12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10일 기보에 따르면 '기보벤처캠프'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스타벤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9일) 현재 창업 후 3년 이내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

업자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60개 내외의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전형 외에도 지역균형·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전형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도 추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와 중기부 창업포털 K-스타트업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조합원 채용 강요하다 구속 /사진 뉴시스
▲ 종로학원 "정시 지원 '0' 학과, 3년 새 3개→26개 폭증"

▲ 국민 절반 "사회재난 대응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있다"
▲ 시민단체, '北 무인기 사태' 국방장관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국세청,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특별 세무조사 착수
▲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공개검증하라" /사진 뉴시스